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11-15(정자동,봉우빌딩4층), 전화) 031-719-7087, Fax) 031-719-2087, 담당) 조현정

문서번호 : 씨앗-17043 2017.06.07
수신 : 전국 중·고등학교 및 도서관, 청소년시설 담당자
참조 :
제목 : 2017년(상반기) 씨앗 주제도서(꿈/진로/직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본 재단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재단에서는 ‘꿈/진로/직업’을 주제로 잘 만들어진 책의 출판을 장려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책을 접함으로써 건강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제도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7년 상반기 씨앗 주제도서(꿈/진로/직업)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7년 씨앗 주제도서 목록 : 붙임 1 참조
- 대상독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신청대상 : 공공도서관, 중/고등학교(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제도서의 활용 및 이용자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
- 신청기간 : 2017년 6월 7일 (수) ~ 6월 27일 (화)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2 참조) 작성 → 이메일(seeart2007@naver.com) 제출
- 도서배포 및 지원사항
 - 지원내용 : 2017년 씨앗 주제도서 16종(18권) 및 홍보포스터, 도서소개책갈피
 - 지원대상 : 1,000개 기관
 - 지원기관 발표 : 2017년 6월 29일(목), 재단카페(<http://cafe.naver.com/seeart2007>)
 - 도서발송 : 2017년 7월 1일 예정, 택배배송

붙임 : 1. 2017년(상반기) 씨앗 주제도서 목록
2. 2017년(상반기) 씨앗 주제도서 신청서

(재)도서문화재단씨앗 이사장



2017년(상반기) 씨앗 주제도서 선정

▶ 도서선정 : 16종 18권

- 대상주제 : 건강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기의 꿈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도록 안내하는 책 (키워드 : 꿈, 진로, 직업, 삶 등)
- 대상독자 : 청소년 (중학생 ~ 고등학생)



▶ 도서선정위원

- 북큐레이터 안정희, 어린이책연구가 여을환, 느티나무도서관(이유정/현나라), 재단사무처(조현정/박명희)
-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해당 주제분야의 책을 직접 찾아 읽을 수 있고, 대상독자의 시각에서 내용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 선정기준

- 내용적 측면 : 돈 잘 벌고 화려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조명하거나, 그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관련 평전 포함) 또는 이런 스토리를 갖는 소설
- 형태적 측면 : 단행본을 기준으로 하되 텍스트 위주의 책, 그림책, 만화책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

< 2017년(상반기) 씨앗 주제도서 목록 : 16종 18권 >

NO	구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1	소설	불에 탄 나무토막 같구나 아스케	레이프 에스페르 안데르센 보림		2011
2	소설	구덩이	루이스 싸커	창비	2007
3	소설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	라헬 판 코에이	사계절	2005
4	소설	나는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미카엘 올리비에	바람의아이들	2012
5	소설	그냥, 컬링	최상희	비룡소	2011
6	소설	껍질을 벗겨라!	조앤 바우어	시공사	2009
7	에세이	알바에게 주는 지침	이남석	평사리	2012
8	에세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416세월호참사 작 가기록단	창비	2016
9	에세이	오늘이 마감입니다만	크리스토프 니먼	월북	2017
10	인물	웹툰의 시대	위근우	알에이치코리아	2015
11	인물	힙합	김봉현	글항아리	2014
12	인물	머니볼	마이클 루이스	비즈니스맵	2011
13	인물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김태훈	남해의 봄날	2016
14	인물	온 더 무브	올리버 섉스	알마	2016
15	만화	미생 (1~2권)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
16	만화	신들의 봉우리 (1~2권)	유메마쿠라 바쿠 다니구치 지로	애니박스	2009

책을 고르며...

구체적인 직업을 소개하거나 자기계발서 형태로 된 정보 위주의 책들보다 십대들의 고민과 부딪침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책들을 선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 중심의 책이 꿈을 찾지 못해 답답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 아프고, 꿈에 짓눌려 힘겨워 하는 십대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십대에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꿈과 진로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청소년기는 이제 막 '내가 누구인지', '난 무엇을 향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는 첫 출발선에 서있는 시기입니다.

진로와 꿈을 정해 달려가야 한다며 십대들을 억압하는 대신, 고민하고 부딪쳐보는 것 자체가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임을 말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선정하고자 한 까닭입니다.

진로를 정하지 말거나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 경쟁에 지친 아이들, 다 가니깐 나도 간다고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현실적인 실리를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불확실하고 막연한 꿈을 꾸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가는 중'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른 이 책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이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이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현장'이라고 격려하며, '천천히 조금씩 단단한 내면을 갖도록 돕는' 그런 친구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에 탄 나무토막 같구나
아스케

· 레이프 에스페르 안테르
· 셴 글
· 울리치 뤼싱 그림
· 김일형 옮김
· 2011년 | 보림

이유정이 추천합니다

바이킹 시대의 어느 섬, 어른들 모두 항해를 떠난 어느 날. 또 다른 바이킹의 습격으로 마을은 불바다가 되고 족장의 아들 안과 노예의 아들 아스케만 살아 남습니다. 안은 주인행세를 하지만 실제로 둘 만의 섬에서 홀썬 자유로웠던 사람은 자유인 마을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족장의 아들 안이 아닌 아성의 삶을 몰으며 부딪치며 살아온 아스케였습니다. 며칠 만에 둘의 관계는 뒤바뀌고 각자의 힘을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며 세상이 만든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아스케 say

계속 동갑내기의 노예로 살아야 할까? 그럴 수는 없었다. 아스케 자신이 안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아스케는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에 길들여져서 반항하기가 어려웠다. ... 안은 앞으로도 계속 주인이고, 자기는 항상 노예일까? 자기는 안처럼 자유롭지 않은가? 아스케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단순히 살아남는 문제를 넘어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p.22)

안 say

노예가 복종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노예가 반항하면? 위협하려고까지 하면? 자유인은 지배하기 위해 태어나고, 노예는 침묵하고 복종하기 위해 태어난다고 했다. 안은 왜 그런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다. 당연히 그런 풀 알았다.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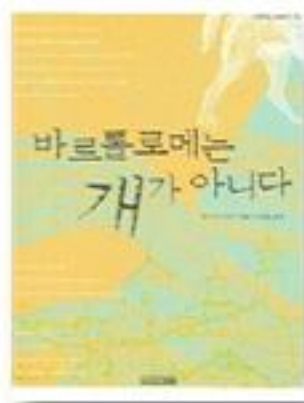
구덩이

· 루이스 썬커 지음
· 김영선 옮김
· 2007년 | 창비

이유정이 추천합니다

- ❖ **사건** : 느닷없이 어디에선가 운동화 한 켤레가 떨어진 것이다.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인 양. 그게 클라이드 리빙스턴의 신발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p.39)
- ❖ **결과** : 판사는 초록호수 캠프에 빈자리가 있다고 말한 뒤, 그 캠프의 규율이 스탠리의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초록호수 캠프 아니면 감옥, 둘 중 하나였다. (p.41)
- ❖ **초록캠프** : "너는 하루에 구덩이를 하나씩 파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건 없다. 구덩이는 깊이가 1.5미터, 폭도 어느 쪽으로든 1.5미터가 되어야 한다. 삼을 자로 쓰면 된다. 아침 식사 시간은 네시 삼십 분이다" (p.25)
- ❖ **비밀 1** : 아이들이 무언가 배우게 하려고 구덩이를 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탠리는 그렇게 우물우물 대답했다. 소장은 어떤 물건, 즉 키스하는 케이트 바로우의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p.196)
- ❖ **비밀 2** : 스탠리의 고조할아버지가 밭이 하나 밖에 없는 집씨 여인한테서 돼지를 훔치는 바람에 그 집씨 여인이 고조할아버지와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뭐 그런 사연이었다. ... 잘 풀리지 않는 일은 무지 많았다. 스탠리 가족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았다. (p.16)

#초록호수 #지독히 운 없는 스탠리 #가문의 저주 #나랑 무슨 상관? #탈출 #운명 #인종차별 #비극적 사랑 #레알? #퍼즐조각 #언빌리버블 #해피엔딩



**바르톨로메는
꿈이 아니다**
· 라할 판 코에이 지음
· 박종대 옮김
· 2005년 | 사계절

현나라가 추천합니다

바르톨로메는 꿈추 난쟁이입니다. 공주의 마부인 아버지와 가족을 따라 대도시 마드리드로 오지만 골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감옥의 삶과 다름 바 없는 곳에서 바르톨로메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버리 않고 살아가던 바르톨로메는 우연히 길에서 공주의 눈에 띄어 공주의 놀잇감인 '인간개'가 됩니다. 개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은 궁정정화가 벨라스케스의 화방과 그림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 바르톨로메,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시험’, ‘입시’에 맞춰 살다보니 어느 순간 하고 싶은 게 ‘그냥’ 없어졌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자꾸 ‘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불안해져요.” 도서관에서 일하다보면 무기력한 청소년들을 종종 만납니다. 꿈을 찾는 일은 ‘내가 나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일입니다. 바르톨로메가 화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마 ‘내 자신’을 찾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넌 꿈이 뭐냐?’는 질문에 성급히 답을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는 동안 두고두고 고민할 일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이 ‘불안’에 한 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낭만적으로 꿈만 꿀 때냐?’고 주변에서 채근하기도 하겠지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은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작은 실마리가 되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나는 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미카엘 올리비에 지음
· 윤예니 옮김
· 2012년 | 바람의아이들

현나라가 추천합니다

주인공 위고는 프랑스어 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요트로 이사를 갑니다. 처음엔 섬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는데 차츰 섬의 환경에 적응해 가는데... 그곳에서 자이나바와 처음으로 남녀의 관계를 맺고 ‘성’과 ‘사랑’에 눈을 뜹니다. 임신한 자이나바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돌아온 프랑스. 풍요로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늘 부족하기만 했던 마요트에서의 삶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소비에 질려버린 위고는 ‘광고의 공격과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가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사랑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조차도 서툴고 요란스러운 위고의 삶을 통해 날것 그대로의 청춘의 모습을 들여다 봅니다.

“너,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마도 평범한 어른이 위고를 만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사랑의 감정을 알기도 전에 여자친구와 섹스에 빠져 아이를 임신케하고, 당장 쓰지도 않는 물건을 세일을 한다고 마구 사들이는 사람들에게 대항해 벌이는 ‘광고청소운동’은 정도를 넘습니다. 청춘은 그런 시기입니다.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숙한 생각과 의식 있는 행동은 스무 살이 되면 마법처럼 생기는 걸까요? 우리시대에 수많은 위고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넘치는 것, 두려움과 흥동 사이에서 흥들흥들 균형을 맞추며 천천히 배워가고 있음을 담담히 보여줍니다.



그냥, 컬링
· 최상의 지음
· 2011년 | 비룡소

조현정이 추천합니다

컬링은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납작한 돌(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하우스)안에 넣어 겨루는 경기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여기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녀석들이 국가 대표를 위한 선발전도 아니고 그저 동호인을 위한 컬링 대회에 한번 나가 보겠다고 뚝뚝 뭉쳤다.

어른들은 항상 꿈을 물고, 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내가 그 꿈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자꾸 근사한 이유를 찾아야 할 거 같고 ‘왜’라는 분명한 이유를 찾은 후 그것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주인공 을하는 스스로와 멤버들에게 도대체 이런걸 ‘왜’하는지 계속 질문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그냥’이었습니다.

“왜 하는 거냐, 컬링?” / “술통이 톡 트이더라. 웬지 모르지만, 그냥.” (276p)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삶의 재미를 느끼나요? 우리 삶에서 ‘그냥 좋아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전혀 중요치 않은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하고 있다, 컬링. 이 어둠 속, 혼자가 아니라서 좋다. 달려간다. 함께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래서 하는 것이다. 컬링, 우리는 하고 있다.” (279p)



껍질을 벗겨라!
· 조연 바꾸어 지음
· 이주희 옮김
· 2009년 | 시공사

박명희가 추천합니다

뉴욕의 작은 과수원 마을 배인스빌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가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인가 그곳에 무서운 말을 전하는 문구가 나붙기 시작하고, 마을엔 유령 이야기가 무성하게 떠돕니다. 급기야 폐가에서 낯선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고, 마을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었던 소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배인스빌의 유일한 지역신문사는 죽은 영혼과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조백 여사가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기사화하고 유령 이야기와 목격담들을 계속 소개합니다. 하지만 유령 뒤에 무언가가 숨겨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 힐디는 기자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신문반 학생입니다. 힐디는 학교 신문이 교내의 소식만 다루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힐디는 현재 마을에서 일어나는 상상치 않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마침 까칠한 전직 신문기자를 만나 기사 작성 방법과 요령을 배우게 되는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역할, 정보의 유희 그리고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 우리사회의 상황과 더해져 큰 울림을 주는 소설입니다.



알바에게 주는 지침
· 이남석 지음
· 2012년 | 평사리

여름환이 추천합니다

글이 고약하고 불량스럽지 않아? (그래) 너무 뼈뺏하게 보는 거 아냐? (맞아) 모든 알바 주인이 알바비를 때먹지는 않잖아. (그래) 손님한테 친절해서 손님들이 좋아하면 다른 알바보다 일만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손해라고? 그렇다고 친절한 게 나빠? (아니) 일 잘하면 농땡이 치는 동료 알바들만 좋아한다고? 그럼 게으름을 부리는 게 좋아? (아니)

이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뼈뺏하게 썼다고 했어. 읽어 보면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 책에선 착한 주인, 나쁜 주인, 착한 손님, 진상 손님으로 단순히 썼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는 걸. 책 읽는 사람이 그걸 잊지만 않으면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생각해.

분명 현실에 있는 이야기야. 초등학생들까지 불법 전단지 알바를 뛰는 세상에 어리다는 이유로, 돈을 주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합부로 하는 주인과 손님이 있어. 알바 청소년 중에는 보호해 줄 어른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가출한 사람도 있잖아. 파트타임, 임시직이지만 알바도 그 가게나 기업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엄연한 노동자야. 비인격적으로 대할 권리는 없어.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눈물 나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어린 알바들 말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너무 적잖아. 잘못된 거지.

내가 알바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책을 읽은 게 도움이 될 거 같아.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일은 유니폼도 편찮고 깨끗해 보여. 하지만 8kg짜리 통을 계속 들었다 놔다 하고 팔뚝과 손아귀 힘을 많이 쓰는 일인 걸 고려하는 게 좋겠어. 통을 들 때 허리를 쓰지 말고 두 다리로 버티고 일어나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 주유소에서 일할 때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넣는 '혼유'를 하면 다행히 알바비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필요한 정보야. 16가지 알바 일을 경험자가 알려주듯이 상당히 생생하게 썼다는 게 이 책의 장점이야.

내가 알바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혼자 공공대고 괴로웠던 일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어른한테 대들면 안 되지,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돈도 못 받고 쫓겨나면 어떡해 하면서 참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해볼 거 같고. 또 나처럼 고생하는 알바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게 고쳐져야 사회가 더 나아지겠구나, 생각도 할 수 있고. 알바가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니까 알 건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그랬는데, 너희가 킬킬대고 웃으며 보면 좋겠어. 실제로 당한 일이 있으면 이 참에 친구들과 신나게 욕하고 억눌렀던 마음도 풀고. 정말로 심한 일을 당해서 방법이 필요한 사람,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이수정 지음, 철수와영희 2015)를 찾아봐.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희 편에서 쓴 아주 좋은 책이야.



다시 봄이 올 거예요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씀
· 2016년 | 창비

여름환이 추천합니다

세월호참사로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이 목숨을 잃었어. 그 형제자매들은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눈앞에서 친구를 잃고 살아남은 학생 75명은 또 어땠을까. 이 책은 생존학생 11명, 희생학생의 미성년 유가족 15명이 말한 걸 묶은 거야. 사고를 기억하기가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들이 입을 연 거지.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들한테 다 소리를 질러서 밖으로 나가자고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보다 더 힘드신니까 괴롭단 말을 할 수 없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단원고' 얘기하는 게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싫었다고 해.

사고 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기들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 그래서 책에는 고통스런 기억만 있는 게 아니야. 아픔을 견디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더 단단해진 이야기가 담겨 있어. 25명 이야기는 하나하나 다 달라. 각자 상처도 다르고, 이겨내야 한 현실도 달랐고,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보는지도 달랐어.

특히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몸이 다치는 줄도 모르고 여러 사람을 구한 학생 이야기야. 어느 정도로 열심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구한 여자아이의 오빠를 구하지 못해 자기가 살인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정도였어. 그 학생은 집에서 아버지랑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숨을 포기하고 싶었던대. 그런데 구명조끼가 고장난 여학생을 본 거야. "나는 이런 가정에서 너무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나는 힘든 걸 겪었지만 이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 순간에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학생은 여학생을 안고 올라왔어. 책을 낼 때에는 스무 살 어른이 되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어. "행복할수록 눈물이 나고, 슬플수록 남을 존중한다. 고통을 이겨낸 만큼 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25명이 한결같이 한 말은 "사람들이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너희가 들어주면 좋겠어. 너희가 어른들보다 그 학생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인간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은 깨달음도 얻었어. 아주 힘들 때 읽었는데 내게 위로와 용기를 준 책이야. 틀림없이 너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줄 거야.



오늘이 마감입니다만
· 크리스토프 니먼 지음
· 신현림 옮김
· 2017년 | 월북

여름환이 추천합니다

서점에서 이 책을 몇 장 넘겨보다 말고 막 사진을 찍어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보냈어. "멋지지! 짱이지!" 최고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한눈에 매력 있는 이미지에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한참 들여다봐도 좋은 느낌이고, 한 주 뒤에 봐도 새로운 느낌이 시들지 않고, 생각도 좋아서 계속 들여다봐도 싫증이 안 났어.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래픽 디자인이 이렇게 멋진 일이구나, 즐거웠어. 그래, 좀 비판적인 태도로 볼까? 『뉴욕 타임스』 블로그에 일요일마다 실린 '비주얼 칼럼' 중에서 고르고 고른 작품들이구나, 수준도 세계 최고고, 성공도 최고로 했구나, 『뉴요커』 표지도 했고, 음, 돈도 엄청 벌었겠지, 대단한 사람이네.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겠지? 개성 팍팍 밀어주고 창의력 제대로 키워주는 분위기에서 컸겠지? 백프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일했겠지? (이런 것도 비판이라고 우기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직업으로 하면 괴롭다고들 하지. 그래도 엄청 잘나고 좋아 보이면 그걸 잊게 돼. 좋은 면만 보이고,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게 세상에 많기도 하니까. 한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작업하는 과정이 즐거우면 보나마나 결과가 안 좋다. 관찮은 작업들은 긴장과 짜증 속에서 괴로워하며 일한 것들이라는 거야. 자기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내 작품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난 곧 퇴출될 거다, 난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한다. (이런 좀 인간적으로 계속 읽고 싶어지잖아)

작가가 찾은 해결책이 어떤 건가 하면, 훌륭해지는 건 운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잘하게 될 때까지 1만 시간 연습하는 거래. 또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고, 돈에 쪼들리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으니 통장 잔고도 관리해야 한대.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는 초조감 앞에서 시작하기조차 어려울 때는 이런다는 거야. '받아들여야 한다. 내 실력은 딱 나만큼이란 걸' (헤이! 나랑 생각이 같으시네)

인생은 불공평한 걸까, 공평한 걸까. 둘 다 진실인 건가. 아무튼 세계 최고 일러스트레이터와 나는 같은 생각을 했어. (너희도?) 1만 시간 연습할 만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 너희가 고민하는 건 그거겠지.

책에 실린 작품들이 어떤 건 눈이 혹하게 멋져 보이고 또 어떤 건 그냥 봐서는 그저 그래 보일 만큼 수수했어. 그 수수한 것 중 하나가 내 마음을 찡하게 했어. 원지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심금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어. 너희도 그럴 거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어느 게 더 멋진지 못 고르겠다고 행복한 괴로움에 빠질 거야. 하지만 결국 그땐 평가하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찡하고 울려오는 그림을 만나는 거야. 아, 나도 이런 그림을,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꼭 미술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그림을 만나면 좋겠어.

진짜 자기 마음을 알게 되거든. 좋은 선택을 하려면 자기를 알아야 하고, 예술은 바로 그런 기회를 넓혀준대.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할게.



웹툰의 시대
· 위근우 지음
· 2015년 | 알에치코리아

여름환이 추천합니다

웹툰 작가 24명의 인터뷰집입니다. 나는 읽고 나서 작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 좋았습니다. 출판만화가 밀려나고 웹툰이 주류매체로 되던 때 네이버웹툰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는데, 이 책에 실린 24명이 인기 연재작가로 활약했었지요. 그때의 젊은 작가들을 책 한 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최소한 5명은 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 첫째는, 일찍이 장래희망을 정하고 꾸준히 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웹툰)작가가 된 사람은 없더라는 것. 집, 학교, 미술학원을 오가며 대학 가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하일권), 부모님 웃게 해드리고 학교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만화그렸지 만화가가 된다는 생각은 못했다(미티), 외고 가서 적응 못하고 '도피유학' 했다 돌아와 대입준비하며 우울하게 지낼 때 부모님 몰래 유머사이트에서 '임여질' 하며 시간을 보냈다(정다정) 등. 다행히 정다정 작가는 그때 익힌 개그코드가 작품 원천이 되었다. 물론 계획한 일은 전혀 아니었대요.

둘째는 인기작가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것. 연재 마칠 때마다 슬럼프에 빠진다, 더 재미있게 그릴 자신도 없고 그리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주호민), 작업이 안 돼서 오락하는 틈틈이 만화를 그리던 때도 있었다(조석), 그럴 땐 재미있어서 그렸는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괴로웠다(기안84) 등.

셋째는 진짜 작가가 되지는 건 작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자기를 냉정하게 돌아볼 줄 알게 되면서라는 것. 작품을 하며 쌓인 노하우라면 '딱 하나, 곰수다.'(하일권), 『슬램덩크』가 잘 됐다고 농구만화를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설거지를 정말 잘하면 설거지만화를 그리는 게 맞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맞추면 남 흉내를 내게 된다(조석), 작가가 캐릭터에 몰입해서 그린 진짜가 있고 그냥 그린 가짜가 있다, 어느새 내가 그냥 선만 따고 있더라(기안84) 등.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작가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생각하면서 웹툰을 보니 웹툰이 더 재미있어졌고요.

지은이가 쓴 비평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작가인터뷰에 이어서 실었는데 이 말년 작가에 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병맛' 개그는 '기-승-전-와장창'이라는 패턴으로 전개된다, 결말에서 웃음이 터지지만 핵심은 기-승-전을 치밀하게 짜는 데 있다, 성냥개비를 엉터리로 쌓은 탑과 공돌이 건축물, 어느 쪽이 와장창 무너질 때 충격파가 크겠는가.

핵심을 잘 짚었다고 느꼈습니다. 비평은 인터뷰만큼 술술 읽히지 않고 좀 어려운 편이지만, 말하려는 바가 뚜렷하고 납득이 가게 썼습니다.



힙합
· 김봉현 지음
· 2014년 | 글항아리

여을원이 추천합니다

힙합과 랩이 같은 거야? 래퍼들은 왜 번쩍거리는 장신구를 좋아하지? 허세도 심하고 욕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던걸? '쇼미더머니'에서 '고등래퍼'까지 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미국프로농구(NBA) 스타와 마약경단이란은 무슨 관계야? 안전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 랩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건 왜 그래? 도대체, 힙합이 뭐길래?

원래 내 생각이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어. 잘 모르는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게 힙합이라던데 그 말이 맞는 거 같아. 일단 셉테이드, 허슬, 스웨거, 스트리트 크레드, 리스펙트 같이 잘 모르는 말이 많잖아. 읽어 보니까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었어. 유명 힙합 가수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고 그 사람 음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나오는데 내용이 재미있었어. 또 중요한 랩 가사가 책에 많이 나와서 좋았어. 거칠고 폭력적인 대목도 있지만 전체를 아니까 납득이 갔어. 감동 어린 내용, 아름다운 내용도 있고, 잘 시적이고 멋지게 썼다는 걸 알았지.

요즘은 다른 장르에도 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곡들이 다 힙합은 아니야. 힙합 용어를 이해하려면 미국 흑인 사회와 문화, 역사를 알아야 했어. 노예의 후손, 차별받는 인종으로 태어나서, 대도시 빈민가에서 형과 아저씨가 마약을 팔아 돈을 벌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걸 보면서 자라고, 성공하려면 농구스타가 되는 길뿐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노래한 게 힙합의 출발이야. 그래서 힙합의 에너지는 걸보기와 달리 눈물과 좌절, 분노와 콤플렉스에서 솟아나는 것 같았어. 힙합에서 폭력성, 남성 우월, 여성 비하, 동성애 혐오를 느낀 적 있을 거야. 그런 게 어디서 유래하는지 알면 단순히 비난하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돼. 그런 흐름에 반대하는 힙합 뮤지션, 여성 뮤지션 이야기도 책에 나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흑인 음악이 재즈처럼 세계 보편의 음악이 된 거였어.

이 책이 힙합의 핵심을 담았다는 느낌이 오지? 나는 힙합 음악을 실제로 즐긴 경험이 없는데도 재미있었으니까 너희는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파고들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차근차근 읽어가면 글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힙합 본토인 미국 뮤지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더 랩-힙합의 시대』(시어 세라노 지음, 김봉현 옮김, 월북, 2016)를 보면 좋아. 내용, 그림, 디자인이 아주 멋진 책이야. 우리나라 힙합 뮤지션에 대해서는 『힙합하다』(송명선 지음, 안나푸르나, 2016)가 좋아. 빈지노에서 지코까지 42명이 자기 어린 시절부터 음악 얘기까지 들려주는 책이야. 그리고 한국 힙합의 특징과 멋진 한국 랩 가사를 소개한 책으로 『랩으로 인문학 하기』(박하재홍 지음, 슬로비, 2017)가 좋았어. 랩 가사를 쓰고 싶은 사람은 꼭 한 번 읽을 만해.



머니볼
· 마이클 루이스 지음
· 김찬별 노은아 옮김
· 2011년 | 비즈니스맵

안정희가 추천합니다

미국의 가난한 구단 오를랜드 애슬레틱스가 정규시즌에서 29개팀 중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했다. 유명하지 않는, 혹은 다른 구단에서 기피한 선수들끼리의 조합으로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2000년과 2001년에는 가장 부자 구단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아웃카운트 몇 개 차이로 아깝게 패했다. 그들에게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가? 경제학자는 오를랜드가 거둔 수 많은 승리의 요인을 구단을 이끈 단장 빌리 빈을 비롯한 운영진의 남다른 운영철학에서 찾았다.

빌리는 고교시절 프로야구 스카우터라면 모두가 탐내는 선수였다. 훌륭한 체격에 빠른 발과 강속구, 타고난 감각에다 조명탑 너머로 공을 날려 보내는 장타력까지 갖추었다. 모두들 메이저리그 스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빌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대학 대신에 프로야구에 화려하게 진출했다. 그러나 끝없이 추락했다. 빌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세월이 흐른 후 빌리는 돈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린 그 순간을 반복해서 돌아본다. 후회가 아닌, 경험으로부터 삶을 배우고자 했다. 인생은 불확실하며 위험의 연속이다. 빌리는 선수의 걸모습이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 숫자로 가득한 통계를 버린다. 야구에서는 자신의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에 대처하는 능력에 따라 야수를 평가한다. 메이저리스 선수라면 명백한 실책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실책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이 날아가는 쪽으로 최대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다. 결국 실책을 기록하는 선수들은 정확한 위치에서 수비하고자 한 선수에게 발생한다. 오를랜드 애슬레틱스는 결과보다 선수들의 연습과 경기의 모든 과정을 보고자 했다. 제일 돈이 많은 구단을 상대로 가장 가난한 구단의 보통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낼 수 있었던 비결이다.

야구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는 소설 같은 실제 이야기다.

안정희가 추천합니다

튀김 소보루 빵으로 유명한 대전의 성심당.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김태호 글
· 2016년 | 남해의봄날

밀가루 두 포대로 시작한 빵집이 대전을 넘어 한국 최고의 빵집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빵집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케 한다.



온 더 무브

- . 올리버 섉스 지음
- . 이민아 옮김
- . 2016년 | 알마

박명희가 추천합니다

이 책은 신경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올리버 섉스의 자서전입니다. 섉스는 부모님이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등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섉스는 어머니로부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라는 평생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되고,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둘째 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고통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지만 가족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성적체성에 대한 혼란 등으로 괴로워하며 틈만 나면 오토바이에 매달립니다. 또한, 자신이 의욕적으로 매달리던 연구마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그만두고 좌절감에 시달리다 마약까지 복용합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젊은이가 무슨 이유로 이 시대의 위대한 의사로 기억되는 걸까요?

올리버 섉스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거침없이 알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전해줍니다. 책의 두께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 이야기, 틱장애 등으로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야기, 가난한 시인 이야기, 자신의 가족 이야기 등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생각과 함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특히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드니로와 로빈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배우라는 직업을 더욱 빛나게 해 줍니다.

책을 읽다보면 올리버 섉스는 훌륭한 의사이지만 분명 타고난 이야기꾼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생 1-2

- . 윤태호 지음
- . 2012년 | 위즈덤하우스

안정희가 추천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 갈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여러 번 뜻하지 않은 지점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다.

장그래는 바둑을 두며 열심히 살았지만 입단을 포기한 지점에서 보니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다. 낯선 영역에서 새로 출발하는 장그래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어려 보였다. 물론 대학졸업장도 토익점수도 없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기 전 그의 경험들이 장그래를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바둑을 하면서 터득했던 경험이 회사생활에서도 작동했다. 헛된 경험은 없었다. '어디를 향하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신들의 봉우리 1-2

- . 유메마쿠라 바쿠 원작
- . 다니구치 지로 만화
- . 홍구희 옮김
- . 2009년 | 애니북스

안정희가 추천합니다

히말라야를 최초로 오른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그렇다. 힐러리가 1953년 최초로 정상을 밟기 전인 1924년, 조지 맬러리가 먼저 히말라야 등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상 200여미터 부근에서 실종됐다. 75년만에 시체를 발견했지만 그가 정상에 오르기 전에 사망했는지 등정에 성공한 후 사망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가 지녔던 카메라를 찾는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 70여년이 지난 후 히말라야 카트만두에 맬러리가 사용한 카메라와 동일한 기종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일본인 사진작가 후카마치는 비싼 가격에 카메라를 구입하지만 곧 빼앗긴다. 카메라를 찾는 과정에서 한때 일본 최고의 산악이었으나 세상의 관심에서 사라진 하루 조지가 카메라의 원 주인임을 알게 된다.

히말라야 최초 등정가가 누군지 밝히려는 젊은 사진작가의 시선과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위험한 등정로인 히말라야 남서벽을 겨울에 무산소로 오르려는 꿈을 꾸는 하루의 삶이 교차된다. 왜 산에 오르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저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씨앗 주제도서 신청서

- ※ 유의사항 : 1. 필히 모든 항목을 작성하셔야 하고, 기관의 직인을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2. 신청인 1인당 1세트만 (1기관당 2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배송처)	(Tel :)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성명 : <input type="checkbox"/> 직위 : <input type="checkbox"/> 핸드폰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 신청기관 유형 : 다음 중 한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공공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학교 (학생수: 명)	<input type="checkbox"/> 중학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중학교(도서관 외 학급문고 등)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도서관)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도서관 외 학급문고 등)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수련관 / 문화의집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 공부방 / 복지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술요망)		

▷ 확인 요구 사항

도서활용	<input type="checkbox"/> 별도 코너 마련을 통한 전시/열람 <input type="checkbox"/> 관련 독서 프로그램 진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술요망)		
의무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 의무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약속 여부는?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주제도서의 개인적 활용, 파기, 외부반출(기증 포함), 판매행위 등의 금지 2. 만화를 포함하여 제공된 주제도서를 차별 없이 공히 활용하여 아이들이 다양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협조사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음 협조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 약속 여부는?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도서수령 후 도서수령증 회신 2. 설문조사 참여 (9~10월) ☞ 협조사항 미수행시는 차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확인	(사업을 알게 된 경로를 기술해 주세요 : 인터넷 사이트명 또는 단체명 등)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6월 일

기관명 : (직인)

(재)도서문화재단씨앗 귀중